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류성진 스테파노, 김민정 켄마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독서: 윤석영 라파엘, 이해정 끌레오파	봉헌금: \$ 169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교무금: \$ 750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
이번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최미라 베아트릭체	합 계: \$ 919
다음주 미사해설: 최미라 베아트릭체, 조은경 수산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1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제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필요한 옷가지와 치약을 가져왔고 편지 쓰는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제게 위장약으로 쓸 포도주를 보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썼고 신자들은 금방 알아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주를, 위장약이라고 쓴 꼬리표와 함께 작은 병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피하도록 손전등 안에 제병을 숨겨 보냈습니다. …… 그때 느꼈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세 방울의 포도주와 한 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대였고 주교좌성당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정부군에 체포되어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투안 주교님의 이야기입니다. 주교님은 수용소에 계시면서 밤이면 불이 다 꺼진 수용소 침대에서 손바닥을 제대 삼아 포도주 세 방울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담뱃갑 종이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성체를 보존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성체 조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교님과 신자들을 도와주셨고, 오히려 그곳에서 사람들이 더욱 열렬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성체성사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성체성사는 구원의 빛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더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더 정성껏 미사를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성체 성혈 대축일]

2011년 6월 25일

<제 1 독서> 신명기, 8,2-3.14 ~-16 ~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10,16-17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빔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그분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그분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요한복음, 6, 51-58

복 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399 봉헌: 216 성체: 496 파견: 461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신부님! 성체 작은 것 말고 신부님 먹는 큰 것으로 주세요!”

예전에 어린이 미사 중 영성체 시간에 한 꼬마가 느닷없이 한 말에 저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어물어물 대답을 못하자 뒤에 서 있던 다른 꼬마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 임마!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예수님이야, 그냥 믿고 먹어!”

지금 생각해도 똑 부러지는 대답입니다. 아마도 큰 성체를 저에게 달라고 한 아이는 작은 성체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천진스런 아이들의 깨끗한 동심이 마냥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첫 영성체를 하던 날의 기억도 새롭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성체성사에 관한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사정은 측근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군중들과 제자들은 위와 같은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최후의 만찬 때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전날 밤,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시고 축성하신 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살과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후에도 이 예식을 행하고 그때마다 당신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체성사의 가르침은 성령의 빛과 도우심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 사제가 축성하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사 때 주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기억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몸소 죽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값으로 이루신 구원의 결실이 미사를 지내는 지금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체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떠밀려가듯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삶의 목적, 많은 은인들의 소중한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성체성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신부님 사제 서품 10주년 축하 및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대학원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지하 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St.Paul 에서 지하 친교실 청소 및 리모델링을 위해 짐을 줄여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 뉴욕에서 김상용 신부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미사 및 친교 후에 테라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시간이 되시는 교우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밀워키 한인 성당이 이번에 본당으로 승격되어,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밀워키 한인 공동체 "본당 승격 감사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신부님과 함께 참석 바랍니다.



말씀의 이야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는구나

신문, 출판, 방송 등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교우들 중 성지순례와 산을 좋아하는 친교모임인 언론인 산악회라는 단체가 있다. 7년째 매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전국 성지와 산을 걷고 있다. 대부분 성지에서는 외국인 사제들의 순교를 많이 기념하고 있었다.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조선이란 작은 나라에 오셨을까? ...중략... 이분들은 조선 각지의 저자골목이나 두메산골, 작은 어촌 등지에 흩어져 있던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체를 나누어 주시며 먼 타국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하셨다. 순교 사제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성찬례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얼마 전 성체성사의 의미에 대해 아주 까맣게 잊은 것을 깨닫고 급히 가톨릭대사전을 찾아보았다. ...중략...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심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차려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를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었으니, 그나마 고해성사 후 성체를 모시면 좀 편하고, 고해성사마저 못하면 모르는 척하고 받아먹었으니... 교회는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머물러 계시며 나누어진 빵을 받아먹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며 그리스도와 일치’가 증대된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례를 위해 신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으며 모인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전례를 시작하였고, 이어서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였으며 봉헌된 음식물에 축성기도와 함께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였고, 이어서 모인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감사기도로 진행되었다.

그럼 나는 성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하느님께서 주신 소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가장, 남편, 아버지, 직업인으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의례적이고, 허식적이며, 사치스럽고, 화려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즐겁게 땀 흘리고 환희에 찬,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책을 주님의 제단에 한 아름 봉헌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저놈 참 녀석도 좋네,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는구나. 네가 달라고 손을 내미니 준다마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빵과 포도주와 제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글로 세상 복음화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건복 프란치스코 | 출판인